

## 미국-멕시코 전쟁의 이해: 간과된 성격들과 멕시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임상래\*\*

단독/부산외국어대학교

**Lim, Sang-Rae (2011) "Rethinking the Mexican-American War and Mexico's Historical Interpretations"**

### ABSTRACT

The Mexican-American War (1846-1848) was an armed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that occurred in the wake of the 1845 U.S. annexation of Texas, which Mexico considered part of its territory despite the 1836 Texas Revolution. American President James K. Polk sought territorial expansion to the Pacific coast, so the American forces invaded and quickly conquered New Mexico, California, and other parts of northern Mexico. In September of 1847 the American army captured Mexico City and forced Mexico to sign the Guadalupe Hidalgo Treaty. The major condition of the treaty was the forced Mexican Cession of the territories of Alta California (currently California) and New Mexico to the U.S. in exchange for \$18 million. Mexico accepted the Rio Grande as its national border, and the loss of an immense territory.

However, upon reexamination the Mexican-American War has more diverse and important meanings. We can say the war was closely connected in the U.S. with the slavery controversy and motivations for the war had racist overtones. In addition the war carried a significant meaning when it is viewed in the context of America's war history, which has made it the origin of the anti-Americanism in and of Latin America.

Finally, the Mexican-American War exposed plainly that the 'real' independence of Mexico was still far from being complete. The economy and political system was not yet quite built and social integration between the classes and regions was not accomplished. Thus, given these factors the defeat of Mexico in the war could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08-362-A00003).

\*\* Sang-Rae Lim is professor of Spanish and Latin American studies at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srlim@pufs.ac.kr).

have been expected to some extent.

**Key Words:** Mexican-American War, U.S.-Mexican War, annexation of Texas, border between the U.S. and Mexico, Mexico's national identity, American territorial expansion / 미국-멕시코 전쟁, 텍사스 합병, 미국-멕시코 국경, 멕시코 민족 정체성, 미국 영토 확장

## 들어가는 말

미국에서 남서부(Southwest)는 오클라호마와 콜로라도 남부를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주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지리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화적이다. 문화적으로 남서부는 삼문화적(tricultural)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에는 1500년대 말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약 250년 정도 북미 원주민과 스페인계 문화가 공존하였고 이후에는 여기에 앵글로 문화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남서부에는 아직도 스페인계와 멕시코계의 흔적이 많다. 스페인어의 사용이 많으며 종교, 건축 그리고 음식 등에서도 히스패닉 문화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또 남서부는 공통적으로 히스패닉과 멕시코계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많다.<sup>1)</sup>

이처럼 남서부가 미국의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이 지역이 미국-멕시코 전쟁(이하 미멕전쟁)으로 미국에 새롭게 편입된 역사를 가진 곳이기 때문이다. 미멕전쟁은 서부로 영토 확대를 꾀하던 미국 정부가 텍사스를 병합함으로써 1846년 양국 군대가 텍사스-멕시코 국경에서 충돌하여 발생하였다. 이 전쟁의 결과로서 오늘날 미국과 멕시코의 영토가 정해지고 국경선이 확정되었다. 이 전쟁 이전까지 오늘날 미국의 남서부는 멕시코의 북부 영토였다. 따라서 미멕전쟁은 동부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오늘날의 광대한 미국 영토가 완성된 전쟁으로 그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하나는 미멕전쟁의 성격을 고찰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국경’과 ‘영토’에 가려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던 이 전쟁의 또 다른 성격들을 고찰하여 이 전쟁을 재평가하고자

1) 남서부의 히스패닉 인구 비율은 캘리포니아 37%, 애리조나 30.8%, 뉴멕시코 45.6%, 텍사스 36.9%이다. 이는 미국 총 인구 대비 히스패닉 인구 비율(15.5%)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U.S. Census Bureau, State & County Quick Facts, 2011.04, <http://quickfacts.census.gov/qfd/>).

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미멕시코전쟁이 미국사와 멕시코사의 교집합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전쟁의 흐름을 멕시코의 시각에서 재구성하고 이 전쟁의 패배가 멕시코 당대사의 산물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곧 미멕시코전쟁을 통해 당시의 멕시코와 멕시코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위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들어가는 말’, ‘미멕시코전쟁의 경과’, ‘미멕시코전쟁의 가려진 성격들’, ‘미멕시코전쟁의 멕시코사적 해석’, ‘맺는 말’ 등 총 5장으로 구성될 것이다. ‘미멕시코전쟁의 경과’에서는 미멕시코전쟁의 배경, 전개, 의미를 고찰하고, ‘미멕시코전쟁의 가려진 성격들’에서는 미멕시코전쟁이 내포한 다양한 의미와 성격들을 규명하여 이 전쟁의 성격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이어 ‘미멕시코전쟁의 멕시코사적 해석’에서는 미멕시코전쟁을 멕시코사의 맥락에서 이해할 것이다. 여기서는 미멕시코전쟁이 독립이후 멕시코 근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고 당시 멕시코인의 대응과 인식을 궁구해볼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에는 미멕시코전쟁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양국의 시각에서 이 전쟁이 보여주는 다양한 역사성과 멕시코사적 의미를 다룬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이 연구는 학술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미멕시코전쟁을 주제로 수행된 학술 연구는 매우 적기 때문에<sup>2)</sup> 미국사뿐만 아니라, 특히 멕시코사 연구의 지평을 넓힌다는 면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미멕시코전쟁의 경과

### 텍사스의 독립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후 멕시코 정부는 식민과 교역을 위해 북부지역(지금의 멕시코 북부와 미국의 남서부)을 외국인들에게 개방했다. 이때 미국인의 이주가 많았는데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멕시코 상인을 밀어내고 이 지역의 교역을 장악하였다. 북부 교역의 중심지였던 뉴멕시코 시장을 지배했던 멕시코 제품은 미국의 공산품에 밀리기 시작했고, 미국 상품을 가득 실은 역마차가 산타페 트레일(Santa Fe Trail, 미주리 주-산타페간의 교통로)을 왕래하면서

2) 이순주의 「미국-멕시코 전쟁 연구」와 양재열의 「멕시코 전쟁(1846-1848)시기의 의회: 전쟁 반대파의 딜레마」 연구가 있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등 극북 지역 시장에 대한 멕시코의 통제권은 점차 약화되었다(Brinkley 2005a, 337).

이중 텍사스는 다른 지역에 비해 발전이 늦은 편이었다. 텍사스의 주요 도시들은 1700년대 초에 세워졌고 스페인 사람들은 텍사스 남부에 소 사육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텍사스 동부 지역은 습하고 나무가 많아 목축에 적합하지 않아서 정착민이 많지 않았다(Birdsall 2005, 273).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면화 플랜테이션의 확대를 바라는 대농장주의 요구에 따라 1820년대부터 스페인에 수차례 텍사스 구매 의사를 표명하였다. 스페인은 이를 거부하고 1821년에 식민화법을 제정하여 이 지역의 영유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식민화법에 따라 텍사스로 이주한 외국인(다수는 앵글로계 백인이었다)은 싼값으로 토지를 제공받고 세금도 일정기간 면제받았다. 스티브 오스틴을 중심으로 한 미국인들은 1822년 텍사스에 최초의 미국인 정착촌을 건설하였고 이후 백인들이 주로 목화 경작에 관심을 갖고 텍사스로 들어왔다. 텍사스의 앵글로계 인구는 1830년 약 7,000명(당시 멕시코계 3,500명)에서 1835년에는 30,000명(당시 멕시코계 8,000명)으로 급증하였다. 텍사스에 미국인이 많아지면서 스페인어 대신 영어를 쓰고, 가톨릭을 믿지 않고, 멕시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Brinkley 2005b, 68-69).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노예 노동이었다. 1829년 멕시코 정부는 노예제 폐지를 발표하고 현재의 노예는 인정하지만 새로운 노예의 유입은 전면 금지하였다. 그러나 텍사스의 백인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예를 데려와 문제가 되었다. 또 1830년 4월 멕시코 정부는 북부 지역의 식민화 정책을 바꿔 앵글로인의 추가 이주를 금지하는 법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멕시코 정부가 이들에게 부여한 토지와 면세와 같은 특권들을 폐지할 것이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오스틴의 주도하에 텍사스의 백인들은 1832년 산 펠리페(San Felipe)에 모여 청원서를 작성하였다. 주 내용은 면세기간을 연장해주고, 새로운 이민자에게 토지를 제공해주고, 텍사스를 주로 승격시키는 것을 멕시코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Cosío Villegas 1988, 805-806). 1835년 텍사스의 반멕시코 감정이 고조되어 독립 운동이 시작되었고 1836년 3월 텍사스는 정식으로 독립을 선언하였다.

산타 안나(Antonio López de Santa Anna)가 이끄는 멕시코군은 1836년 3월 샌 안토니오의 알라모 요새에서 텍사스 반란군을 진압하였다. 그러나

샘 휴스턴 장군과 오스틴이 이끄는 텍사스군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산 하신토 전투에서 멕시코 군을 급습하여 전세를 역전시켰다. 산타 안나 대통령은 포로가 되었고 텍사스의 독립을 인정하는 벨라스코(Velasco) 조약에 강제로 서명하였다. 텍사스는 워싱턴에 대표를 보내 연방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노예제를 인정하는 주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잭슨 대통령이 텍사스의 연방가입을 유보하였다(Rodríguez 1995, 122).

텍사스에서 멕시코 진압군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텍사스에 증원군을 파견할 수 없었다. 멕시코의 국가재정은 고갈 상태였고 또 다른 전쟁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텍사스의 반란을 묵과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가 멕시코 독립전쟁 당시 자국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1838년 베라크루스를 침공하였기 때문이다.<sup>3)</sup> 프랑스에 맞서기 위해서 또 다시 산타 안나가 필요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그는 프랑스에 용감히 맞섰으나(그는 이 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었는데 이로 인해 텍사스를 빼앗긴 과오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 1839년 3월 멕시코 정부는 프랑스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사이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과 프랑스도 텍사스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영국은 멕시코 정부에 텍사스의 독립을 인정하는 대신 미국과의 불합병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내었지만 멕시코는 이를 거부하였다(Cosío Villegas 1988, 808). 그러나 그것은 멕시코의 실수였다.

텍사스 정부는 이후 미국에 합병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합병 반대 세력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러나 미국에게 텍사스는 서부로 영토를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게다가 당시 텍사스에 대한 유럽 열강의 영향력이 고조되었고, 특히 텍사스에 영국의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합병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Lee 1993, 42-43). 결국 1845년 3월 텍사스 합병은 미국 의회를 통과하였고 12월 텍사스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28번째 주가 되었다.

## 전쟁의 발발

멕시코는 여전히 텍사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면 텍사스의 독립에 서명한 산타 안나는 당시 멕시코 대통령에서 퇴위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멕시코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1836-1845년의

3) 피해를 입은 프랑스인 중에는 제빵업자(pastelero)도 있어서 이 전쟁은 ‘파스텔 전쟁’이라고도 불렸다.

10년 동안 멕시코에게 텍사스는 반란지역이었다. 텍사스를 아직도 집 나간 자식으로 여기던 멕시코에게 미국의 텍사스 합병은 노골적인 수모였다. 멕시코는 미국의 텍사스 합병에 항의하여 미국과 단교하였다(Smith 2010, 39).

포크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846년 1월 텍사스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명목은 리오그란데 강이 양국의 국경이라 주장하면서 그 국경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텍사스는 포로가 된 산타 안나에게 리오그란데 강이 텍사스와 멕시코의 경계선이라고 말하도록 강요했지만 그것은 억지였다. 텍사스와 멕시코의 전통적인 경계는 리오그란데 강에서 동쪽으로 240km에 있는 누에세스(Nueces) 강이었다. 그러나 포크는 이를 무시하고 멕시코인들이 살고 있는 리오그란데 강까지 군대를 이동시켰다. 국경 지역에서 양국군의 교전은 잦아졌고 그 피해도 점점 커졌다. 야당인 휘그당은 겉으로는 전쟁에 반대하는 듯 했지만 ‘팽창’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 서부를 원했기 때문이다. 전쟁 비준을 둘러싸고 많은 의원들이 반대 발언을 했지만 투표에서는 찬성하였다. 결국 민주당과 휘그당의 야합으로 전쟁 결의안은 의회를 통과하였고, 상원은 40 : 2, 하원은 174 : 14로 멕시코와의 전쟁을 비준하였다. 링컨을 포함한 소수 의원만이 반대했는데 이들은 노예제 반대론자로서 멕시코와의 전쟁이 남부의 노예 영토를 확대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Zinn 2006, 273-274).

미국의 선전포고는 1846년 5월 13일에 내려졌지만 이미 리오그란데 강 국경지역에서는 양국 간에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미군의 전력은 멕시코군을 앞섰다. 비록 정규군 병력 수는 멕시코가 많았지만 미국은 자원병이 많았고 훈련이나 군비 면에서 우월했다.

미군의 진격은 크게 세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우선 미국은 신속하게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를 점령하였다. 7월에는 캘리포니아의 백인들이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미국의 점령에 저항하여 1846년 9월에는 로스앤젤레스, 12월에는 타오스에서 멕시코인의 저항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다른 부대는 멕시코 내륙으로 진격하여 마타모로스를 점령하고 9월에는 몬테레이, 11월에는 살티요까지 진격하였다. 해상으로는 멕시코의 관문인 베라크루스를 공격하였다. 멕시코군이 저항했지만 1847년 3월 미국은 베라크루스 항구를 함락시켰고 5월에는 멕시코시티와 인접한 푸에블라를 점령하였다. 미군은 산타 안나가 이끌던 멕시코군을 격퇴하고 멕시코시티까지 진격하였다. 멕시코의 저항은 멕시코시티에서 가장 격렬했다. 추루부스코 전투에서 아나야(Pedro

María Anaya) 장군이 항전하였고 차플테펙 전투에서는 영웅적인 사관생도들(이들을 ‘어린 영웅들’(niños héroes)이라고 부른다)과 시코텐카틀(Felipe Santiago Xicoténcatl) 장군이 죽음으로 저항했으나 미국의 침공을 막아내지 못했다. 결국 1847년 9월 14일 멕시코시티에는 미국 국기가 게양되었고 멕시코 정부는 케레타로로 쫓겨 갔다(Davis 2003, 229; Rodríguez 1995, 128). 전쟁 중 포크 대통령은 전비와 국내정치 문제로 반대파의 비난을 받았지만 외국과의 전쟁 중 그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자칫 매국노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Yang 2000). 여기에 캘리포니아에서 금맥이 발견되고 서부 개발의 바람이 불어 이 문제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미멕시코전쟁은 1848년 2월 2일 멕시코시티 근교의 과달루페 이달고(Guadalupe Hidalgo)에서 조약이 체결되어 종전되었다.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미국은 상 캘리포니아(지금의 캘리포니아 주)와 뉴멕시코의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였고 리오그란데 강은 텍사스와 멕시코의 경계선이 되었다. 그것은 지금의 멕시코 면적(197만km<sup>2</sup>)보다 더 큰 240만km<sup>2</sup>에 달하는 넓이었다. 대신 미국 정부는 새로 미국에 편입된 지역의 시민이 멕시코에 요구한 손해 배상금 1,500만 달러와 미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325만 달러를 떠맡기로 하였다(Brinkley 2005b, 84; Davis 2003, 230). 미국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배상금을 지불한 이유는 패전으로 상한 멕시코인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향후 국경문제에서 멕시코의 협력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 전쟁의 결과와 의의

종전 조약이 서명되었지만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것은 1848년 7월이었다. 이후 제임스 개즈던(James Gadsden)이 미국 공사로 멕시코에 왔는데 그는 1853년 멕시코 북부 영토를 매입하는 협상을 멕시코 정부와 벌였다. 이듬해 양국은 ‘개즈던 매입지’(Gadsden purchase)라고 하는 멕시코 북부의 약 78,000 km<sup>2</sup>의 영토(오늘날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주 남부 지역)의 매매에 합의하였다. 이로써 양국 간의 국경은 확정되었고 남서부의 영유권은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다.

미멕시코전쟁은 아메리카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려는 미국이 독립국가로 나아가려는 멕시코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한 전쟁이었다. ‘아메리카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이후 아메리카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또 이곳에



그림 1. 현재 미국-멕시코 국경

살던 멕시코인들은 자신들이 국경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국경이 자신들을 넘어와서 미국의 이등 시민이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에게 이 전쟁은 오늘날 미국의 영토를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남서부는 신속하게 미국화되었고 이후 미국 영토로 완전히 통합되어 국가 발전을 이끌었다.

텍사스, 뉴멕시코, 콜로라도, 오클라호마에는 목축업이 발전하였다. 대륙횡단철도가 완성되고 시카고 등 대도시에 육가공업이 발달하면서 각지에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텍사스의 목장 규모는 갈수록 커졌고 기업화되었다.<sup>4)</sup> 텍사스는 동남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반사막이어서 20세기 중반 관개 시설이 완공되면서 미국의 중요 농업 지대로 성장하였다(Lee 2006, 238).

캘리포니아의 발전은 서부개척과 골드러시에 힘입은 바 컸다. 1870-1900년 사이 200만이 넘는 사람이 서부로 왔는데 외국인도 많았지만 다수는 동부의 앵글로계 백인이었다. 연방정부는 서부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4) 그러나 텍사스 목축업의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엄청난 소떼가 한정된 방목지로 몰려들어 먹을 풀이 모자라게 되었다. 게다가 1886-1887년 두 해에 흉한과 혹서가 있어 개천이 마르고 풀이 말라 많은 소들이 폐사했다. 이렇게 하여 광대한 목장과 값비싼 투자는 몇 해 만에 날아가 버렸다. 장거리 소몰이는 사라졌고 카우보이 신화도 막을 내렸다(Brinkley 2005b, 256-257).



펼쳤다. 이중 1862년 제정된 홈스테드법(Homestead Act)은 이주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Brinkley 2005b, 247). 또 골드러시는 캘리포니아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였다. 1848년 골드러시는 실제로는 몇 년 밖에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에 그대로 남았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크게 증가하였고 백인뿐 아니라 유럽인, 중국인, 히스패닉, 자유흑인노예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었다. 인구의 증가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농업도 크게 성장하였다(Brinkley 2005b, 89; Birdsall 2004, 230-231).

남서부의 미국화는 ‘백인화’를 의미하기도 했다. 남서부가 미국이 된 이후 백인들은 신속하게 이 지역의 경제와 정치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인구적으로도 금세 멕시코계를 넘어섰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의 경우 멕시코계 인구는 주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았고 다른 지역도 유사한 상황이었다. 또한 원주민은 고립된 지역에 설치된 보호구역으로 격리되어졌다(Birdsall 2005, 277). 이렇게 남서부의 인구는 신속하게 백인화 되었다<sup>5)</sup>. 이와 함께 언어 사용도 변화를 겪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처음에는 스페인어와 영어가 함께 사용되었으나 골드러시가 시작되어 영어사용자가 늘자 주정부는 스페인어 사용을 금지하였고, 1855년 모든 공립학교 교육은 영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한 이후 주 헌법으로 스페인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다. 뉴멕시코에서는 스페인어의 사용이 조금 더 지속되었으나 1891년 모든 공립학교에서 영어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이후 스페인어는 공식어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Kim 2007, 194).

1783년 독립한 미국은 1800년대 들어 ‘고 웨스트’(Go west)를 외치면서 부흥과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특히 미국은 서부에서 꿈을 실현코자 했고 이들에게 서부 개척은 신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sup>6)</sup>으로 간주되었다.

5) 남서부의 멕시코계 인구가 이후 다시 많아졌다. 특히 20세기 들어서부터 멕시코 이민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1900-1990년 동안 약 300만 명의 멕시코인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이주했고 이중 대다수는 남서부에 정착하였다. 여기에 불법이민자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많아진다.

6) 1845년 여름 한 신문에 오설리반은 “아메리카 대륙에 확대해야 할 우리의 명백한 운명은 해마다 증가하는 수백만 인구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신(神)이 베풀어주시는 것이다”(our manifest destiny overspread the continent allotted by providence for the free development of our multiplying millions)라는 글을 기고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대외 확장주의의 신호탄이며 당시 미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한 말이기도 했다(Nova 1988, 72).

미국이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서부개척과 영토 확장의 꿈은 실현되었고 따라서 신의 계시도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 미멕시코전쟁의 가려진 성격들

살펴본 바와 같이 미멕시코전쟁의 가장 큰 결과물은 ‘국경’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미멕시코전쟁으로 미국은 서부로 국경을 크게 확장하여 강대국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멕시코는 영토의 절반 이상을 상실하여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쟁은 국경전쟁으로 정형화되고 이러한 이해 구조는 미멕시코전쟁을 국경에 함몰시켜 이 전쟁의 또 다른 성격들과 측면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한계에 빠지게 한다.

기실 미멕시코전쟁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성격을 갖는 역사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쟁에 대한 미국의 의도는 영광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으며 멕시코의 패배도 그 이면에는 멕시코 당대사의 복잡한 관계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전쟁은 양국사를 넘어 아메리카의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멕시코전쟁은 그 자체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미멕시코전쟁과 노예제도

미멕시코전쟁의 간과된 성격중의 하나는 이 전쟁이 노예전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둘러싼 남부와 북부의 지역적 대립은 1830년대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다. 노예제 폐지운동은 노예제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했고 도망 노예들을 북부의 안전한 장소에 숨겨주는 이른바 ‘지하철도 운동’(Underground Railroad)도 이즈음에 나타났다. 따라서 미멕시코전쟁이 발발한 시기는 노예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장 첨예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미멕시코전쟁 이전 많은 미국인들은 노예제가 현재 존속하는 지역 이외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노예반대론자들은 확산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노예제가 실행되고 있던 텍사스의 독립은 새로운 문제거리가 되었다. 노예제 문제가 텍사스의 미국 합병이

연기된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논한 바이다. 특히 노예론자들은 이 전쟁을 통해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여 노예제를 확대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미국의 노예반대협회는 미멕전쟁은 “단지 멕시코의 광활한 영토에 미국의 노예제를 확대하고 영속시키려는 진저리나게 무시무시한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Zinn 2006, 278).

미멕전쟁이 끝난 후 텍사스는 노예제 허용주로 연방에 가입했지만 문제는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유타와 같은 새로운 영토였다. 이곳에는 아직 노예제가 없었다. 따라서 1846년 이들이 어떻게 연방에 가입할지를 놓고 내부적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남부는 멕시코로부터 얻은 새 영토는 노예제를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부 주들은 이를 강력 반대했다. 특히 문제가 된 곳은 캘리포니아였다. 금광이 발견되면서 사람들이 몰려 왔고 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연방의회는 노예제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캘리포니아를 노예제 금지 주로, 뉴멕시코와 유타는 노예제 규정이 없는 주로 하기로 중재안을 만들어 냈으므로 첨예한 대립은 피할 수 있었다. 불안한 타협안 덕분에 이후 3년 동안은 평온할 수 있었지만 결국 남북전쟁의 발발을 피하지는 못했다(Whitney 2004, 203-204).

이처럼 미멕전쟁은 미국 노예제 논쟁의 중요한 분수령이었으며 영토 확장과 함께 노예제 확대의 의도가 반영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미멕전쟁과 팽창주의

미멕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성격은 미국 팽창주의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즉 이 전쟁은 미국의 분명한 정책적 의도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이다. 동부 13개 주에서 시작된 미국의 발전은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미멕전쟁은 미국 정부의 서진 정책의 필연적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멕전쟁이 미국의 영토 확장 정책의 산물이라는 팽창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다. 당시 미국 내에서도 이 전쟁을 포크 정부의 침략, 정복, 약탈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이 중 1846년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불의한 미멕전쟁을 비난하면서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다 투옥되기도 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불복종』(*Civil Disobedience*)을 저술하여 훗날 간디와 루터 킹 목사의 시민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오설리반의 ‘명백한 운명’은 당시 미국의 팽창주의를 가장 시사적으로 대변

하는 것이었다. 당시 정치인들 중에는 멕시코 전체를 점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었고 전황이 명백히 유리해지자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파타고니아까지 라틴아메리카 전체를 미국의 영토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Cosío Villegas 1988, 812).

### 미멕시코전쟁의 인종주의적 성격

미멕시코전쟁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모습중의 하나는 이 전쟁에서 드러나는 미국 인종주의의 양태이다. 미멕시코전쟁에서는 전쟁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우월한 미국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집단 심성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인종주의자들 가운데는 전쟁을 찬성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우월한 민족이 허약한 혈통을 가진 멕시코인을 절멸시키고 있다면서 승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반면 전쟁을 반대하는 자들도 인종차별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미멕시코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새로운 땅과 새로운 사람을 미국이 얻게 되는데 그것은 온갖 색깔의 유색인을 포함한 열등한 민족과 뒤섞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나태하고 무지한 새로운 인종이 생겨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멕시코와의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Zinn 2006, 276, 280).

또 다른 인종주의도 있었다. 콜럼버스의 ‘선한 야만인’(buen salvaje) 신화처럼 미국의 제도와 법을 폭정에 시달리는 불쌍한 멕시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해야 한다는 시혜주의적 인종주의였다. 자유의 땅을 확대한다는 믿음은 영토 팽창의 야욕을 정당화시키는 구실이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멕시코전쟁으로 이전 멕시코 땅에 미국의 자유가 도래했다 해도 텍사스와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노예제가 시행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 미멕시코전쟁과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는 여러 방식으로 미국을 이해한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시각은 반미주의이다. 멕시코 역시 마찬가지이다. 멕시코에서 반미주의는 기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뿌리는 미멕시코전쟁에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멕시코에서 미멕시코전쟁의 상흔은 너무도 크고 깊어 멕시코에서 반미를 반대하는 것은 아직도 사회적 금기이다. “신은 멀고 미국은 너무 가깝다”는

멕시코의 속담은 반미주의 트라우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백전쟁은 양국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전 아메리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전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1898년 미서전쟁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백전쟁에서 라틴아메리카권의 리더국인 멕시코를 제압함으로써 아메리카의 패권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맞서는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예고했다고 할 수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국력이 커져가자 멕시코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민족주의와 반제국주의는 서로 연결되어 ‘저항의 문화’(culture of resistance)를 만들어냈다. 특히 멕시코는 물론이고 미국의 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쿠바, 니카라과 등의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미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안티 그링고(anti-gringo)와 안티 양키(anti-yanqui)는 라틴아메리카 민족주의와 저항의 문화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Smith 2010, 142).

따라서 미백전쟁은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 반미주의의 기초와 자원이 되었고 또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에게 미래의 위협은 먼 곳이 아니라 이웃에서부터 올 수 있다는 현실을 미리 알려준 역사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미백전쟁의 전쟁사적 성격

아마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나라중 하나일 것이다. 특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짧은 역사를 고려했을 때, 이 분야의 지구촌 대표를 뽑는다면 응당 그것은 미국의 차지가 될 것이다. 영국과의 전쟁(1775)으로 독립을 쟁취한 이후 미국이 참여한 큰 전쟁만을 어림잡아보면, 미백전쟁(1846), 남북전쟁(1861), 미서전쟁(1898), 미국-필리핀전쟁(1899), 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1950), 베트남전쟁(1960), 그라나다(1983)와 파나마(1989) 침공 그리고 아직도 진행형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벌여왔다.

전쟁은 항상 평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집단 또는 국가 간에 권리나 이익을 얻기 위해 하는 가장 극단적인 유형의 경쟁이다. 특히 전쟁이 영토와 국경을 둘러싸고 벌어지면 대개의 경우 거기에는 애국주의적 조작이 동원되어 양상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면에서 미백전쟁은 이념이나 종교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영토 획득을 위한 전형적인 침략 전쟁이었다. 따라서 미멕시코전쟁(Mexican-American War 또는 U.S.-Mexican War)은 전쟁사적으로 명백하게 북미침략전쟁(War of North American Invasion)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 미멕시코전쟁은 독립 이후 미국이 수행한 최초의 전면전이었다. 이전의 전쟁들은 영토 경쟁이나 인디언(북미 원주민) 봉기를 진압하는 등의 국지적인 무력동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미멕시코전쟁은 미국 국가가 전군적 군사력을 동원하여 벌인 최초의 전쟁이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수행한 대부분의 전쟁이 해외에서 벌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멕시코전쟁은 예외적인 성격의 전쟁이기도 했다. 이처럼 미멕시코전쟁은 여러 측면에서 전쟁사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미멕시코전쟁의 멕시코사적 의의

우리나라에서 미멕시코전쟁에 대한 이해는 주로 미국사의 자료와 시각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멕시코사적인 성격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양국 간에 벌어진 이 전쟁이 마치 일방의 전쟁처럼 설명되어 온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미멕시코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는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되지만 멕시코의 패배는 축약되어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멕시코전쟁 당시 멕시코 국가의 정치·경제적 토대는 어떠한 것이며 국가의식과 국민 통합은 어떤 수준에 있었는지 잘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궁구하는 것은 이 전쟁이 멕시코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더 명확히 설명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멕시코의 독립과 미멕시코전쟁

독립 직후 멕시코의 모든 것은 거의 무질서와 무정부적인 상황에 있었다. 전쟁으로 총 인구의 10%인 6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광산, 도시, 공장의 시설은 거의 파괴되었고 스페인인들이 자신들의 재산과 장비를 가지고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멕시코에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교역은 중단되었고 세금 수입은 거의 없었고 국가 재정은 바닥나 있었다. 대부분이 군대를 유지하는 경비인 정부 지출은 영국 등 유럽 국가의 차관으로 겨우 메우고 있었다. 사회적

으로 치안은 부재했고 국경에서 불법 이민과 밀수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인구는 멕시코 중앙 고원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고 국경의 인구는 희박했다. 남쪽(과테말라)과 북쪽(미국)의 국경은 불분명했다. 대외적으로 스페인은 재침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호시탐탐 모종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

표 1. 미멕시코전쟁 기간 중 멕시코 대통령

이 름	통 치	정 당	이 름	통 치	정 당
Santa Anna	1834.04-1835.01	자유-보수	José Joaquín de Herrera	1844.09	자유주의
Miguel Barragán	-1836.02	자유주의	Valentín Canalizo	-1844.12	보수주의
José Justo Corro	1836.03-1837.04	보수주의	José Joaquín de Herrera	-1845.12	자유주의
Anastasio Bustamante	-1839.03	보수주의	Gabriel Valencia	-1846.01	자유주의
Santa Anna	-1839.07	자유-보수	Mariano Paredes	-1846.07	보수주의
Nicolás Bravo	1839.07	보수주의	José Mariano Salas	1846.08-1846.12	보수주의
Anastasio Bustamante	-1841.09	보수주의	Valentín Gómez Farías	-1847.03	자유주의
Francisco Javier Echeverría	-1841.10	보수주의	Santa Anna	-1847.04	자유-보수
Santa Anna	-1842.10	자유-보수	Pedro María de Anaya	-1847.05	자유주의
Nicolás Bravo	-1843.03	보수주의	Santa Anna	-1847.09	자유-보수
Santa Anna	-1843.10	자유-보수	Manuel de la Peña y Peña	-1847.11	자유주의
Valentín Canalizo	-1844.06	보수주의	Pedro María de Anaya	-1848.01	자유주의
Santa Anna	-1844.09	자유-보수	Manuel de la Peña y Peña	-1848.06	자유주의

출처: List of heads of state of Mexico, 2011.06,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heads\\_of\\_state\\_of\\_Mexico](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heads_of_state_of_Mexico))

특히 국내 정치는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다. 독립국가의 정체를 두고 자유파와 보수파의 대립은 계속 심화되었다. 1833년 산타 안나가 병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부통령이었던 고메스 파리아스가 뒤를 이었는데 그는 일련의 지식인들과 함께 새로운 개혁을 준비했다. 특히 그는 가톨릭과 군인이 행사해온 특권으로부터 국가를 자유롭게 해야(*liberar*)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 자유주의자들(*liberales*)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건설하기위해 정치를 개혁하고자 했다. 이에 교회와 군부가 맞섰다. 이들은 세금 납부를 거부하였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특별법과 자신들이 식민 시대부터 누려왔던 권한(*fuero*)들을 지키기 위해 일부 대지주와 연합하여 보수적(*conservadores*)이고 중앙주의적인(*centralismo*) 정당을 만들었다. 이들은 새롭게 생겨난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압해줄 강력한 중앙집권주의 국가가 필요하다고 믿었다. 파리아스 정부가 일련의 개혁조치들을 시행하자 이들은 조직적인 반란을 일으켰다. 반대로 보수파 정부가 들어서면 자유주의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이와 같이 자유와 보수가 서로 대립하여 멕시코는 25년 동안 대통령이 43번 바뀌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들 중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11차례나 대통령이 된 산타 안나였다(*Lecciones* 1994, 33-34).

텍사스 독립에서 미멕시코전쟁 종전까지 1835-1848년 동안에도 멕시코에는 임시 정부를 포함하여 정권이 무려 25번 바뀌었다. 멕시코는 텍사스,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거의 내란 상황에 처해있었던 것이다.

1845년 12월 에레라 대통령은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책임을 파레데스(*Paredes*) 장군에게 맡겼다. 기실 에레라 대통령은 이 전쟁에서 멕시코가 이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양국 군대의 전력의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잘 몰라 그저 용감하기만 했던 많은 국민과 정치인들은 그를 비겁한 대통령으로 몰아세웠고 그로 인해 그의 정치적 인기는 크게 떨어졌다. 이를 간파한 파레데스 장군은 북쪽으로 진격하는 대신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를 전복시키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다(*Zoraida Vázquez* 2006, 57-58). 이 순간 미국 군대는 이미 리오그란데 강을 넘고 있었다. 파레데스는 6개월 후 축출되었고 어느 누구도 미국과의 전쟁과 국내 혼란을 수습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산타 안나를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다.

유카탄의 반란은 미멕시코전쟁과 겹쳐 일어났다. 스페인에서 독립한 이후 유카탄



에는 멕시코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중앙집권주의와 이에 반대하는 연방주의 그리고 이들 백인과 메스티소에 저항하는 마야 원주민 세력이 서로 맞서고 있었다. 1838년 연방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멕시코 정부군이 이를 진압하였다. 1846년 1월에는 중앙주의자들이 봉기했는데 이유는 유카탄 정부가 멕시코로부터의 독립과 미멕전쟁에서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이어 1847년 7월 마야 원주민들이 불평등과 부정에 항의하여 백인 지배계급에 대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 3년간 저항하였다(Chung 2011).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대립한 폴크스의 반란(Rebelión de los Polkos)도 역시 미멕전쟁이 한창일 때 일어났다. 1847년 1월 중앙집권주의를 강화한 헌법이 발표되자 연방주의자들이 즉시 반란을 일으켰다. 폴크스라는 명칭은 반란을 주도한 델라 페냐 바라간(De la Peña Barragán) 장군과 장교들이 폴카(polka) 춤을 즐긴 데서 유래되었다. 양 측의 무력 충돌로 의회는 정지되었고 멕시코시티는 반란군과 정부군간의 전쟁터로 변하였다. 결국 산타 안나가 중재자로서 대통령이 되어서야 내란은 수습되었다. 이로 인해 멕시코 군대에 베라크루스를 침공한 미 해군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군수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결국 멕시코는 베라크루스를 방어하지 못했다(Olmos 2010, 46).

이처럼 미국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 멕시코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멕시코 군대는 국권을 수호하는 것보다 단지 반대파와 정적을 제거하는 데에만 명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미멕전쟁은 식민지에서 독립한 직후 근대국가로 통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맞이한 국가적 위기였다. 멕시코가 주권국이 되긴 했지만 아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근대 국가로 통합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 멕시코의 패배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미멕전쟁과 멕시코 국민 의식

민족이라는 개념은 공동체의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 의식은 의세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과의 전쟁은 이 민족인식의 단합과 통합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미멕전쟁과 미국 침공에 대한 멕시코인들의 인식과 태도는 이원적이고 미성숙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발발하자 전반적으로 멕시코 국민들은 미국의 침공을 반대하였고

이러한 대중의 태도는 국민의식을 고취하였다. 미군의 진격에 멕시코 군대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민간인도 참여한 조직적인 저항을 전개했다.

특히 베라크루스에서 멕시코시티에 이르는 점령 지역에서 멕시코 군의 게릴라 전술은 미군이 멕시코시티로 진격하는 것을 지체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양국의 전쟁이 최고조였던 1847년 6월에서 8월까지 민간인도 가세한 멕시코 군대는 보급품을 수송하는 미군 열차를 습격하였고 마을에 잠입하여 야간에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후퇴하는 유격대 전술로 미군의 작전을 어렵게 했다. 또 1847년 9월 멕시코시티에서 대중은 비록 산발적이긴 했지만 미군에 최후의 일전으로 격렬히 저항하였다. ‘털 떨어진 놈들’(los pelados)이라고 천시 받았던 대중들은 일부 하급성직자와 함께 수비대를 조직하여 침략자에 끝까지 맞섰다(Levinson 2009, 401-402; de la Garza 1986, 48).

그러나 반대로 미국의 침공에 중립 또는 우호적인 계층도 있었다. 일부 상인들은 미군의 점령으로 물자의 반입이 늘어나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교회는 미국의 침공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특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미국과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de la Garza 1986, 47). 이러한 교회의 입장은 폴크스의 반란에서 멕시코 정부가 자신들의 특권을 제한했을 때 정부에 반기를 들었던 점을 상기하면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 멕시코의 재정 상황으로 볼 때 전쟁비용이 나올 곳은 교회밖에 없었다. 그래서 파리아스 대통령은 교회 재산에 대한 압수령을 내렸다. 교회가 운영하는 양로원, 고아원, 병원, 구호소 등이 압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교회의 반대로 교회 재산 압수령은 나중에 취임한 산타 안나에 의해 철회되었다(Zoraida Vázquez 2006, 60; Cosío Villegas 1988, 815). 멕시코는 총알 없이 총만 가지고 싸움터에 나간 셈이었다.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내부적인 대립을 자제하는 지금과는 달리 당시 멕시코 사회는 독립이후 계속된 전쟁의 여러 모습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자나 지식인 등 기득권층은 국가적 위기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폴크스의 반란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미국의 침공에 순응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외국의 침입보다 대중의 부상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de la Garza 1986, 48). 따라서 집권 계층은 대중의 힘을 침략군을 물리치는데

집중시키지 않았다. 전세가 불리하였고 또 그로 인한 대중의 봉기가 염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는 미국과의 조속한 종전을 원했다.

미국의 침공에 맞서는 입장도 중앙과 지역이 일치하지 않았다. 주정부는 중앙정부의 군대와 연합하여 미군과 전쟁을 수행했지만 일부 주들은 미군을 방어하는데 주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다. 멕시코시티의 함락이 임박한 8월 멕시코 주는 주 군대가 주 경계 밖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멕시코시티를 방어하는데 멕시코 주의 병력은 참여하지 않았다(Cosío Villegas 1988, 817).

미국은 미국을 몰아내자는 애국심이 전국적으로 불타오르고 멕시코 전역에서 침략군에 맞서는 게릴라 전술이 개시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멕시코의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멕시코 국민과 정부가, 그리고 계층, 지역, 세력 간의 불이해와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우선 미국 정부는 군인들에게 가급적 멕시코인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명령하였다. 푸에블라를 점령한 스콧(Scott) 사령관은 병사들에게 민간인을 보호하고 특히 사제들과 가톨릭 종교행사를 존중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 미국은 점령지에서 지역정부의 행정과 자치를 최대한 인정하였다. 따라서 무니시피오(municipio, 군이나 구에 해당하는 지방 자치 단위)정부는 미국에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Levinson 2009, 399, 406; Olmos 2010, 45). 두말할 나위 없이 이 모든 것은 멕시코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미국에 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미멕시코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에 대한 멕시코의 입장은 이중적이고 모호하였다. 멕시코 사람들은 독립 이후 미국의 팽창주의를 경계하면서도 미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멕시코 자유주의자들은 미국의 이상에 동조하였고 미국을 멕시코 국가가 가야 할 모델로 여겼다. 이들은 미국을 따라함으로써 멕시코가 근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유럽의 가치와 가톨릭을 통해 멕시코를 근대 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Rodríguez Díaz 2001, 42-43). 따라서 미멕시코전쟁의 발발과 멕시코의 패전은 초기 멕시코 자유주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것은 이후 멕시코 정치와 사상에서 반미와 비미(非美)의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멕시코는 독립 국가이긴 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국가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미멕시코전쟁이 남긴 가장 큰 정치 사회적 유산은 어떻게 국가 통합을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미멕시코전쟁에서 패하고 멕시코 국민과 통치 계급은 국가 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멕시코는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미멕시코전쟁은 비록 너무 비싼 댓가를 치루긴 했지만 멕시코에서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일깨운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맺는말

살펴본 바와 같이 미멕시코전쟁은 서부로 영토 확대를 꾀하던 미국 정부가 텍사스를 병합함으로써 일어났다. 이 전쟁으로 미국은 영토를 크게 확대하여 태평양에 이르게 되었고 반면 멕시코는 광대한 영토를 상실하여 국가적 위기를 맞았다. 따라서 이 전쟁은 미국과 멕시코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에게 미멕시코전쟁은 더 ‘치명적’으로 중요했다. 왜냐하면 푸엔테스의 말처럼 멕시코에게 이 전쟁과 남서부는 ‘아물지 않는 상처’(herida abierta)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구상에서 미멕시코전쟁처럼 당사자 국가에서 각기 대조적으로 인식되는 전쟁은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이 전쟁은 미국이 승리한 여러 전쟁 중의 하나로 기념될 뿐이지만 멕시코에서 이 전쟁은 멕시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순간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멕시코전쟁은 미국의 ‘영광’과 멕시코의 ‘몰락’을 동시에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멕시코의 패배는 미국의 승리를 반증하기 위해서만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미멕시코전쟁의 멕시코 편은 동전의 뒷면처럼 결코 뒤집어 보여지지 않으며 항상 가려져있을 뿐이다. 멕시코사에서 이 전쟁을 조망하는 것은 이 전쟁이 멕시코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발발하였고 따라서 멕시코의 패배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음을 논증하는 것이다. 패전으로 멕시코 국민과 국가가 깊은 비관주의에 빠지는 운명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동시에 멕시코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를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전쟁은 멕시코에게 하나의 ‘거울’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멕시코전쟁은 단순한 ‘영토’전쟁 이상의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전쟁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전쟁은 노예제, 팽창주의, 인종차별과 같은 어두운 계략의 전쟁이기도 했으며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에 새로운 패권주의가 올 것이라는 불길한 역사를 알리는 전초전이기도 했다.

## 참고문헌

- Birdsall, Stephen S. and John Florin(2004), *Outline of American Geography*, Kyung-Sik Lee(trans.), Seoul: U.S. Embassy in Korea.
- Birdsall, Stephen S. et al.(2005), *Regional Landscape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onh Wiley and Sons, Inc.
- Brinkley, Alan(2005a), *The Unfinished Nation: A Concise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I*, Hae-Sung Hwang et al.(trans.), Seoul: Humanist.
- \_\_\_\_\_(2005b), *The Unfinished Nation: A Concise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II*, Hae-Sung Hwang et al.(trans.), Seoul: Humanist.
- Chung, Hae-Joo(2011), “Rationale for the Yucantan’s Caste War,” *Asian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4, No. 1, pp. 129-153.
- Cosío Villegas, Daniel(coord.)(1988), *Historia general de México II*, El Colegio de México.
- Davis, Kenneth(2003),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American History*, Soon-Ho Lee(trans.), Seoul: With Books.
- de la Garza, Luis Alberto(1986), *Evolución del estado mexicano formación 1810-1910*, Ediciones El Caballito.
- Kim, Nam-Gyun(2007), “Is American National Identity in Crisis? The Official English Movement,” *Korean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26.
- Lecciones de Historia de México(1994), segunda parte,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
- Lee, Hyun-Song(2006), *Foundation of American Culture*, Seoul: Hanul Academy.
- Lee, Soon-Joo(1993), *A Study on the Mexican War*, Dissertation of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Levinson, Irving(2009), “A New Paradigm for an Old Conflict: The Mexico-United State War,”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73, April, pp. 399-402.
- List of Heads of State of Mexico, 2011.06,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heads\\_of\\_state\\_of\\_Mexico](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heads_of_state_of_Mexico)
- Nova, Himilce(1988),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Latino History*, New York: Penguin Putnam.
- Olmos, Vidiriana and Ramsés Ramíez(2010), “Santa Anna y la guerra del 47,” in Itzel Magaña Ocaña(coord.), *México 1847 ¿pérdida o despojo?*, Palabras de Clío.
- Rodríguez, Alfonso et al.(1995), *Lecciones de historia de México*, Editoriales Trillas.
- Rodríguez Díaz, María del Rosario(2001), “Mexico’s Vision of Manifest Destiny during the 1847 War,” *Journal of Popular Culture*, Vol. 35, Issue 2.
- Smith, Peter(2010), *Talons of the Eagle: Latin America,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Sung-Hyong Rhee and Uk-Heon Hong(trans.), Seoul: Kachi.
- U.S. Census Bureau, State & County Quick Facts, 2011.04, <http://quickfacts.census.gov/qfd/>
- Whitney, Francis et al.(2004), *An Outline of American History*, Kyung-Sik Lee(trans.), Seoul: U.S. Embassy in Korea.
- Yang, Jae-Yoel(2000), “U.S. Congress during the Mexican War(1846-1848): The

Dilemma of Antiwar Forces,” *Keimyung Sahak*(Keimyung Journal of History), Vol. 11.

Zinn, Howard(2006),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Kang-Eun You(trans.), Seoul: Siul.

Zoraida Vázquez, Josefina and Lorenzo Meyer(2006), *México frente a Estados Unidos. Un ensayo histórico, 1776-2000*, Fondo de Cultura Económica.

Article Received: 2011. 07. 11

Revised: 2011. 08. 16

Accepted: 2011. 08. 22